



문학편 > 칠분의힘 > 현대소설편 >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향서*를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가 보니, 뜻밖에 호통 소리가 나며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의 머리를 베어 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기를,

“적장 벤 장수 성명이 무엇이나?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총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천자 급히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총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여쭙되,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총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 리 밖에 있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당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하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 와서 천자 곁에 앉아 있다가, 총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총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다.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 되었으니,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그런 말을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총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얼굴을 보니,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여 말하였다.

“소장이 아버지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격절한 말씀을 폐하께 아뢰었으니 죄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아니합니다.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천자가 총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우고 대원수를 명하며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한 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총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 황후. 태후. 태자를 구출한다. 이후,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은 후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십 리 뜰에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 못내 즐거워하는 지라,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이어서 호산대가 떠나갈 듯 하였으며, 원수 유총렬과 모친 장 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와 태후가 가마에서 바빠 내려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의 예로써 천자에게 인사를 올리니, 천자와 태후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였다.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옥문관으로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과 부인 강 낭자를 만나 데려온 일은 모두 천추에 드문 일이다.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 어려운지라, 입이 열 개라도 어떻게 그 말을 다 하리오.”

태후가 유 원수를 치사한 후에 조카 강 승상을 부르시니, 강 승상이 바빠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천자가 내려와 강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이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기 바라오.”

한편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장 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총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에게 물러 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불효자 총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 연왕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너의 모친이 어디 오느냐?”

이때 장 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남편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들어가니, 연왕이 부인을 붙들고 말하였다.

“멀고 먼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 있는가?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 왔느냐. 뉘 집 자손이 모셔왔느냐. 총렬아, 네가 분명 살려 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 천리만리 호국 일당에 잡히어 죽을 줄 알았더니, 십 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갖은 고난을 겪은 총렬을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이야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 작자 미상, 「유총렬전」-@15학년도09월모평AB

* 옥새 : 옥으로 만든,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

* 향서 :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

01_ [빠]르게 [바]르게 [꿈]꿈하게

- ① 작품 밖의 편집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 / X)
- ② 중심 인물이 지닌 전기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0 / X)
- ③ 인물의 대사를 통해 지남 사건의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0 / X)
- ④ 대화가 진행되며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0 / X)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중심 인물의 성격이 변모하고 있다. (0 / X)
- ⑥ 과장된 표현으로 작품 속 분위기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 다.* (O / X)
- ⑦ 천자는 충렬을 만나기 전까지는 항복을 결정하고 있었다. (O / X)
- ⑧ 충렬은 천자의 사람 보는 눈이 모자람과 그에 따른 행동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O / X)
- ⑨ 충렬은 간신의 모함으로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O / X)
- ⑩ 충렬은 적진 속으로 홀로 들어가 적들을 물리치고 태자와 함께 돌아 온다. (O / X)
- ⑪ 충렬은 천자에 대한 고마움으로 정한담을 물리치려 떠난다. (O / X)
- ⑫ 천자는 충렬에게 자신의 오판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⑬ 천자는 고사를 인용하여 충렬이 마음을 달리 먹기를 바라고 있다. (O / X)
- ⑭ 장안의 백성들은 원수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었다. (O / X)
- ⑮ 충렬은 부모 뿐 아니라 부인과도 떨어져 있었다. (O / X)
- ⑯ 충렬은 나라의 위기와 가족의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O / X)
- ⑰ 충렬은 연왕을 물리치고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었다. (O / X)
- ⑱ 유심은 부인과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O / X)
- ⑲ 천자와 유심은 모두 장 부인이 죽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O / X)
- ⑳ 천자는 유심에게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고 있다. (O / X)